

“폰파라치 제도는 감의 횡포”
이동통신유통협, 이통사에 집단소송

휴대전화 판매상인들이 이른바 ‘폰파라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폰파라치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페널티 금액 청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강제적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폰파라치 제도는 자율적 규제가 아닌 감의 횡포”라며 “휴대전화 구입자에게 개별문자를 발송해 신고를 강요하는 등 한 마디로 유통 종사자를 범죄자로 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채증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개인의 신고 한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추이를 보면 통신사 지원금은 시기별, 주요 모델별로 비슷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통신사가 주력모델 등의 답합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한 인위적 방법론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빠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공시는 유지하되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고객혜택을 늘릴 수 있는 자율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공시보다 고가로 판매할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통사 보관 고객지문정보 파기
가입시 수집한 주민증 뒷면 사본 없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연 말까지 일괄 파기할 것을 지시하고 16일 밝혔다.

이동통신3사는 그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보관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를 왔으며, 그 결과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수집한 사본을 파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동통신3사와 지문정보 파기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괄 파기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동통신3사는 이용자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문정보 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일부터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간판만 저축은행...은행의 탈을 쓴 대부업체

이름만 저축은행일 뿐 영업행태는 대부업체와 다를 게 없다. 1년여 전,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영업을 허용하면서 급리하 효과를 얻었지만 대부업체 계열의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약탈적 고금리 대출을 일삼고 있다. 자극적인 광고를 통한 무차별 공격마케팅의 대상이 된 없는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은행의 탈을 쓰고 서민을 멍들게 하는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파헤친다. <편집자주>

연예인 이용한 대출 TV광고

연예인 웃는다고 금리 싸던가요?



OK·웰컴 등 3곳 월2만여회 TV광고
오지호·신규·이경영 등 연예인 이용
‘고금리 대부업체’ 이미지 미화 전략
“누구나 대출 가능” 충동 대출 조장

이중 아프로서비스그룹의 OK저축은행 광고가 1만1107회로 가장 많았다. 매일 370회씩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를 내보낸 셈이다. 2위 웰컴저축은행의 9019회에 비해 월간 광고집행수도 월등히 많다. 더구나 ‘누구나 대출 가능’ ‘무서류’ 등 충동적 대출을 조장하는 표현도 담겨 있다. 저축은행 대출 광고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를 생기기 않도록 광고에 대한 규제와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근 국회 정부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광고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대부업체 광고인지 저축은행 광고인지 모를 광고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광고 내용과 횡수를 놓고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광고심의 위원회는 저축은행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쇠신 위해 유명 연예인 동원
저축은행들은 이미지 쇠신을 위해 유명 연예인을 TV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현재 전파를 타고 있는 OK저축은행 CF에는 오지호 신규 이경영 김은수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 중이다. 이들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대출을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금리 대부업체’라는 이미지를 지우려는 업체 측의 전략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저축은행 이용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 급전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권하는 광고는 사회정서에도 반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광고모델로 등장하면서 고금리 대출 자체가 정당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유명 스타들이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해 비난 여론을 일으킨 바 있다.

약탈적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대부업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 광고에 출연한 오지호 신규 이경영 김은수는 모두 인지도가 높은 배우들이다. 유명인일수록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책임감에 입각해 광고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이들이 ‘대부업체 미화 전략’에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오늘의 채널A
먹거리 X파일 17일 밤 11시

정육식당 고기 실태를 점검하다



소고기는 비싼 가격 때문에 배부르게 먹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그런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정육식당이 등장했다. 일반 식당과 정육점이 결합한 형태로, 유통비용을 절감해 일반 고깃집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품스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구매했을 때 포장된 고기에는 개체번호표가 붙어 있다. 양, 부위, 등급, 가공업체 등 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소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와 함께 정육식당 고기를 먹으러 간 A씨는 구매한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개체번호를 조회했다가 고기의 도축일이 개체번호상 도축날짜와 한 달가량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먹거리 X파일’ 제작진은 정량은 물론 부위, 등급, 유통기한까지 정육식당 고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밤 11시 방송.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오늘의 날씨 4월 17일 금요일 (음력 2월 29일)
A weather forecast map showing conditions for various Korean cities like Incheon, Seoul, Gwangju, and Jeju. It includes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along with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스포츠동아
A section containing sports news, event schedul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ports Donga website and office. It lists dates for various events and provides a phone number and website address.

TV 프로그램 17일 (금)

A detailed TV program schedule table for Friday, April 17th. It lists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Channel A, KBS1, KBS2, MBC, SBS, JTBC, MBN, EBS1, and local stations. Each entry includes the program name, start time, and a small icon representing the program's genre.